

과속은 치명적입니다.

차량 속도가 빠를수록,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속도 차이조차도 안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0 MPH로 이동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25 MPH로 이동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보다 사망 가능성이 두 배나 큽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유는?

뉴욕시는 과속 방지턱, 신호 시간조절, 넓은 차선 좁히기, 경찰 단속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 속도 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 또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부상이 17%, 과속이 6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속도 감시 카메라 단속

뉴욕시 속도 감시 카메라에는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이 차량 속도 측정에 사용하는 레이더 및 레이저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에 의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차량의 이미지가 차량 번호판의 이미지와 함께 기록됩니다.

2019년 7월 11일, 뉴욕시의 개정확대된 속도 감시 카메라법이 발효했습니다. 뉴욕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6:00 a.m.~10:00 p.m., 연중무휴로 속도 위반을 단속합니다. 학교 속도 제한 구역, 즉 학교 주변의 반경 0.25마일에 속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뉴욕시 어느 곳이든 속도 위반은 불법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운전자는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5 MPH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는 속도라는 것ですよ. 2013년 10월 8일 아침, 제 12살 아들 Sammy에게 한 키스가 마지막 작별 키스가 되었죠.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Sammy는 친절하고 밝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보조개 섞인 미소가 매력적이었죠. Sammy의 삶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는 매일 Sammy를 그리워해요. 슬픔이라는 그 두 글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죄책감, 슬픔, 그리움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단어예요.” - Sammy의 어머니, Amy